

성서와의 만남을 추구하는 성서 번역¹⁾

알루 모줄라*

1. 서론

성서공회는 오랫동안 성서를 선교의 재료이자 도구라고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성서에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는 이 점을 1963년 5월 일본의 하코네(Hakone)에서 열린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나온 “하코네 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 성경전서 한 권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신약성서 한 권을,
글을 아는 사람들과 새로 글을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성서
단편 하나를,
모든 교인들이 자국어 성서를 반포하는 기회를.

(Edwin H. Robertson, *Taking the Word to the World: 50 Years of the UBS*, 97쪽)

이 선언은 성경전서나 단편을 세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짝 값으로 반포하겠다는 성서공회의 비전을 아주 잘 드러낸다. 8년마다 열린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대회가 요즘은 4년마다 한 번 씩 열리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표어를 첨가하여 이 비전을 더 강화하였다. 다음은 그 예이다.

1963년 일본 하코네 대회와 1972년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대회

-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1980년 태국 치앙마이 대회 -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

1988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 -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의 희망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프리카 지역 번역책임자, 케냐 나이로비.

1) 2003년 2월 “성서 번역자 양성을 위한 세미나”의 두 번째 발표.

1996년 캐나다 미시소가 대회 -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의 생명**

2000년 남아프리카 미드랜드 대회 -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빛**

이 표어는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나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의 깊게 선택한 것이다. 1804년 영국성서공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부터 성서공회운동의 주요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나 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실로 그리스도교 선교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웨일(Welsh)어 성서의 필요성을 드라마로 표현한 메리 존스(Mary Jones)가 한 유명한 말은 이 세계적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드러낸다. 곧 “[성서를] 웨일스인에게 줄 수 있다면 왜 영국에게 줄 수 없으며 영국에게 줄 수 있다면 왜 세계에게 줄 수 없겠는가(And if for Wales, why not for the Kingdom, and if for the Kingdom why not for the whole world)”하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근대 선교 운동의 등장과 구텐베르크 혁명이 없었더라면 세계 전역에서 성서공회운동의 역사와 성서의 번역과 반포가 달라졌으리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성서가 없었더라면 선교 운동사와 그리스도교 복음 선포가 상당히 달라졌으리라는 것도 자명하다.

알다시피 성서의 원문은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씌어져 있지 않다. 신약성서의 원문은 예수와 사도 시대에 상용된 코이네 그리스어로 씌어졌고, 구약성서의 원문은 고대 히브리어로 씌어졌다. 고대 히브리어의 인접어인 아람어로 씌어진 에스라서(4.8-6.18, 7.12-26)와 다니엘서(2.46-7.28)의 일부를 빼고 말이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성서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저렴한 가격에 적절한 형태나 매체를 통하여 성서를 내놓아야만 한다. 그리스도교 선교의 역사는, 교회가 생겨난 곳은 어디서나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서번역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다. 성서 번역자들의 노력이 없다면 극히 적은 사람들만이 성서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성서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번역된 성서, 곧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번역 성서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제임스왕역(KJV) 성서가 번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성서 번역자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썸이다.

번역 성서는 이전에 글자가 없던 언어에 알파벳 철자 체계를 발명하게 하

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성서번역은 번역 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언어를 재생시키고 보존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서번역은 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이 생기게도 하고 발달하도록 공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성서번역은 어떤 언어의 사전을 개발하거나 문법을 체계화시키기도 하며, 어느 지역의 존재와 그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새로운 신앙 전파하는데 공헌하기도 하였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기록에 의하면 2001년 12월 31일 현재 아프리카에서 상용되는 약 2,000개의 언어 중에서 성경이 전서나 단편이 번역된 것은 641개의 언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성경 전서가 149개의 언어로, 신약성서가 279개의 언어로, 단편(보통 성서의 단일 책으로서 예를 들면 복음서 하나)은 21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세계에서 현재 사용되는 약 6,000여 언어 중에서 성경전서 또는 그 단편이 2,287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중 전서가 392개의 언어로, 신약성서가 1,012개의 언어로, 단편이 88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같은 시기(곧 2000년 11월 1일과 2001년 10월 31일) 동안 일반 출판사들의 성서 반포를 제외하고 여러 성서공회와 성서공회의 여러 지역(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형성하는 단위)의 반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에서 성경전서 2,909,882권, 신약성서 564,481권, 단편 1,375,828권, 새 독자 단편(New Reader Portions, 독해력 수준에 맞춘 쉬운 번역) 844,541권, 단편(Selections, 더 적은 성서본문) 6,771,878권이 분포되었다. 케냐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성경전서 164,535권, 신약성서 9,739권, 단편 13,485권, 새 독자 단편(New Reader Portions, 독해력 수준에 맞춘 쉬운 번역) 15,843권, 단편(Selections, 더 적은 성서본문) 233,858권이 분포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성경전서 23,210,404권, 신약성서 19,029,747권, 단편 20,397,962권, 새 독자 단편(New Reader Portions, 독해력 수준에 맞춘 쉬운 번역) 12,084,008권, 발췌본(Selections, 더 적은 성서본문) 443,436,778권, 새 독자 단편 37,396,552권이 같은 기간에 분포되었다.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성서가 상당히 많이 반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아직도 세계에는 어느 언어나 어느 형태로든 성서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임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임무는 단지 누구나 쉽게 성서에 다가가 읽을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서를 어떻게 사용하게 하느냐 하는 점이다. 각 시대 상황 속에서 성서를 읽고 성서의 궁극적인 메

시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곧 우리의 임무는 성서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 제도, 모든 공동체, 모든 가족과 개인의 일상생활을 꿰뚫고 변혁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돌리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어떻게 사용하게 하느냐가 그 출발점이다.

2. 성서의 위치와 사용

성서공회는 매우 최근까지도 공통의 과제를 “성서를 이해하기 쉽고 원문에 충실하게 교리적 주석을 달지 않고 번역하여 저렴한 가격에 적합한 형태로 펴내어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반포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성서는 다양한 구미에 맞추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형태와 여러 매체로 나왔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 성경을 여러 언어로 펴내고 있으며, 글을 읽을 시간이 없는 이들과 취학 전 아동이나 글을 읽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카세트나 씨디로 성서를 담아 내놓고 있다. 또한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비디오나 영화 또는 디비디(DVD)로 제작하여 내놓기도 한다. 예수님 영화(the Jesus Film)나 보기 성경(the Visual Bible)을 비디오나 디비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누구나 손쉽게 성서에 다가갈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곧 “적합한 형태로 펴내어 가장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반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렇게 지금은 누구나 성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작한 의도대로 사람들이 이러한 매체를 사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집안 구석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거나 그저 눈만 즐겁게 하려고 장식용으로 진열되어 있지는 않을까?

1996년 9월 26일-10월 3일에 열린 미시소가 세계대회²⁾에서 주제 강연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필리핀의 밀바 매가이(Melba Maggay) 박사는 여러 문화권 사이의 대화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성서를 얼마나 잘 접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성서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곧 성서를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성경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날마다 신문을 읽는 것과 견줄 수 있어야 한

2) UBS Bulletin 178/179, 1997년.

다는 얘기이다. 곧 사람들이 읽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가지고 사회 문제나 주요 문화 코드를 예리하고 예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성서공회가 내놓아야 한다.” (UBS Bulletin 178/179:36)

다른 연설자인 노르웨이의 올레 크리스찬 크바르미(Ole Christian Kvarme) 감독은 지구촌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이렇게 말한다.

“성경을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성경이 오늘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두 문제이다.” (앞의 책 45 쪽)

크바르미 감독은 또한 “성경이 어떻게 뚫고 들어가 내일의 문화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49쪽) 하고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성서 본문을 말하고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2000년 10월 10-14일에 열린 미드랜드 총회³⁾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의 임무를 약간 바꾸어 이렇게 선언하였다.

“전 세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그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값싸고 원문에 충실한 성경을 가능한 한 널리 효과적으로 뜻깊게 퍼내는 일.”

이 선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면서 그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이라는 부분은 새롭게 첨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새롭게 첨가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도록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경을 반포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성경은 이미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성서공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을 통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3) UBS Bulletin 2001년, 192/193.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적어도 한 권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집에 있거나 개인 서고에 있는 성경은 점점 더 공부하거나 읽히지 않은 채 먼지만 뒤집어쓰고 방치되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하지만 말씀을 만나 삶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2001년에 열린 한 모임에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대표들은 성서와의 조우라는 개념을 “성서를 발견하여 만나고 삶에 의미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곧 “거룩한 말씀을 **되찾고 발견하는 일**” 그리고 “삶이라는 자리에서 그 삶을 한층 드높이고 변혁하도록 하는 **만남**”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상황과 경험 속에서 성서를 의미 있게 하는 일을 말한다.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여 받아들이고 기리는 일과 성서의 힘과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삶에 필요한 영감 받은 책으로 인정하는 일,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온 누리에 흠어져 살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의 삶과 여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변혁하는 힘이 성경 속에 있기에 신자들과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경은 교회의 소유물이며 교회를 섬긴다. 바로 이 때문에 성서공회는 교회 그리고 교회 연합기관들과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지속한다.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성경은 교회의 기본 문서이며 안내서이며 나침반이다. 이 살아 있는 말씀 말고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다. 또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교회의 가르침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의 선교와 확장의 근거가 될 만한 토대가 없다.

성경은 처음부터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삶과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교회가 자라고 뻗어나가는 데 그리고 성장하고 새롭게 바뀌어 가던 시대에도 깊이 연관을 맺어 왔다. 위기와 전쟁과 독재와 박해가 있을 때에도 성경은 신자들에게 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소외받던 이들에게도 없어서는 안될 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책이다.

성경이 복음전파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도자들이 성경이나 쪽복음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거리 전도자들이나 집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 교회 설교자들

또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이들이 성경 없이 복음을 나눌 수 있겠는가! 무기 없이 전투에 나서는 것과 같다. 런던선교회의 총무이며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연구 총무였던 아더 미첼 처윈(Arthur Mitchell Chirgwin)이 복음전파에 대해 말한 것처럼, “거듭 거듭 나라마다 교회의 확장은 먼저 성경이, 다음에는 개종자가 그리고 교회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성경은 복음전파를 시작한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는 일이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배공동체도 생겨난다.” 처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때문에 결단한다. 개인적인 대화나 설교 또는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은 해낸다. 성경은 마음의 벽을 깨뜨리고 들어가 양심을 되찾게 한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나이로비 대학교의 성공회 채플린이었던 데이빗 베릿도 “아프리카의 성경 반포와 교회 성장”라는 글⁴⁾에서 아프리카 교회에 대해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여러 방언 성경은 그리스도교 성장에 경이적인 역할을 해왔다. 성경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심을 수 있었으며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성경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전 지역에서 힘있고 성숙한 교회를 찾아볼 수 있다. 성경은 교회를 두루 양육한다”(6쪽). 성경 때문에 예배와 예전이 활기차게 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점은 여러 교회가 잘 알고 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명상하면서 신자들이 서로 친교를 다질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3. 성경과의 조우(遭遇)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 번역

성경과의 조우라는 말은 전혀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나이다의 내용의 동등성 번역 이론은 성경과의 만남 또는 성경과의 조우라는 생각에 기초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이다는 초기에 비그리스도교 권에서 일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두루 일한 경험이 있다. 1947년 그의 책 『성경 번역하기 - 원주민 언어에 초점을 맞춘 원칙과 과정 분석』(Bible Translating - An Analysis of Principles and Procedures)을 이러한 말로 시작한다. “이 책은 선교사들을 위하여 쓴 책이다”(1쪽).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일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 책은 잘 알려져 있다. 나이다가 성경 번역에 참여한 이유는 순전히 그가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성경을

4) UBS Bulletin, 1982, 128/129:5-18.

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이것이 나이다를 움직인 이유이다. 위의 책 21쪽에서 나이다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경우 선교사들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는 버릇에 빠지게 된다. 선교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들 그룹 내에서는 이러한 특정한 용어가 들어 있는 번역이 통용되지만 외부 사람들에게 이 번역을 널리 전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뜻은 통해야 할 것이다. 번역이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하는 점에 달려 있다. 그래야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때문이다.” 나이다의 관심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마찬가지로 나이다는 교회의 일부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스도교회의 여러 교단 사이에서 주석적인 문제로 충돌하지 않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22쪽)는 입장을 나이다는 지니고 있었다. 위의 책 같은 쪽에서 나이다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전 교회의 유산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해석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주장 뒤에는 새로운 번역을 좀더 폭넓게 받아들여 좀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이다. 나이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번역이론을 발전시켜 나갔다.

“내용의 동등성이라는 말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사실 가장 중요하지만 때때로 소홀하기 쉬운 점은 표현하는 방식이다. 누구나 말한 것을 똑같이 느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Nida and Tabor 1969:25). 나이다는 “번역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점은 사람들이 그 번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앞의 책 24쪽)라고 말한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번역이란 반응, 반항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이다.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피할 수 없는 만남 또는 조우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하려는 열정과 관심 때문에 현대 성서공회 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교와 복음 전파는 이 운동의 중심 표어이며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다는 그의 선교적인 관심을 빼놓고 이해할 수 없다. 나이다는 언어학을 복음과 성서번역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오늘날에도 성서번역자들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저명한 성서학자인 더글라스 라빈슨(Douglas Robinson)은 나이다를 위협한 인물이라고 했는데(Robinson 1991:225-226), 이는 일반 사람들이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번역 성서, 곧 말은 영어이지만 문법은 영어가 아닌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Nida 1964:20-21) 『미국표준역』(ASV) 같은 번역 성서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점을 폄하하는 뜻에서 그렇게 나이다를 부른 것이다. 라빈슨은 이렇게 말한다.

“『제임스왕역』(KJV)과 『개정표준역』(RSV)의 헤게모니를 뒤집어 엮은 것은 1960년대 중반에 아주 잘 알려진 『복음성경』(TEV)이다. 잘 알려진 이유는, 원문이 씌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뜻이 똑같고 반응이 똑같아야 한다는 이론을 개진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번역고문 유진 나이다 때문이다. 나이다는 설득력 있는 글을 많이 쓴 현대 최고의 번역이론가이다. 제롬과 루터의 성서번역 원칙을 고양시킨 사람을 ‘위험한 인물’이라 부른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직된 고정 관념을 까발려 부숴버린 제롬과 루터만큼이나 나이다는 위험한 인물이다”(앞의 책 225쪽).

라빈슨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보수적인 독자들은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읽어 왔고”(앞의 같은 쪽) 또 외우기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느끼고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 그 성경 하나만이 바른 번역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으로는 서로 대화할 수가 없고 다만 신성안정제 역할만 할 뿐이다. 라빈슨은 또 이렇게 말한다.

“번역자가 번역을 통하여 읽을 것으로 예상하는 독자에게 다가가 마취제 역할이 아니라 개종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곧 번역을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깨어나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 깜짝 놀랄 만한 뭔가가 번역에 있어야 한다.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 엮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개종한다는 것은 뒤엎는 일이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말은 적어도 사실이다. 또한 고정관념에 얽매어 있는 신자들에게도 이 말은 사실이다. 일어나라, 너희 바리새인들이!”(앞의 책 226쪽)

라빈슨은 나이다를 다음과 같은 평가로 결론을 맺는다. “나이다는 성서공회를 성경독자의 수준, 곧 일반독자 수준으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4학년 수준으로 뒤집어 놓았다”(앞의 책 같은 쪽).

이런 점에서 볼 때 2000년 미드랜드에서 모임을 가진 성서공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생각을 내놓았다고 말할 수 없다. 단지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고

다양하게 하고 성서공회가 일을 하고 있는 장(場)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고 했을 뿐이다.

각 성서공회는 미드랜드에서 시작된 이러한 방향에 따라 이 세계 속에서 이러한 임무를 발전시키고 한층 고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곧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부분이라도 출판된 적이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3백만이나 되고, 인구의 절반은 글을 읽을 수 없고, 유엔이 ‘절대적인 빈곤층’으로 부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적인 근본주의에 갇혀 있거나 되살아나는 이교주의에 유혹받기 쉬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다. 더구나 “성경이 많이 반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드랜드 총회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에 헌신하기로 하였다.

⇒ 사람들이 읽을 만한 형태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성경을 제작한다. 특별히 청소년 문제나 가족 문제, 가난과 같은 특정한 문제나 에이즈 또는 자연 재해 같은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꼭 인쇄 매체를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성경을 만든다.

⇒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여 자신을 성경 속에 침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곧 생명의 말씀과 희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임무를 각성하고 모든 사람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섬김의 길을 모색한다.

⇒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과 새로운 독자들을 위해 성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개발한다.

4.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현대의 성서번역자들은 지금까지 밟아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진 나이더와 그의 동료들은 길을 닦았고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번역의 임무와 과정과 도구와 기술 등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번역학 분야가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드랜드 총회에서 강조한 점은 교단 전통을 뛰어넘어 협력하는 일 그리고 여러 자원(기술, 재능, 통찰, 경험, 재정)을 나누는 일, 함께 전략을 세우는 일, 지배와 지도 체제에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일, 일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적절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일 등으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드랜드 총회가 제시한 방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이렇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널리 다양하게 또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점을 예리하게 간파하여 더 확실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미드랜드 총회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다가서려는 이 세계가 다양성과 다원성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나이다 시대에는 단지 주요 언어로 쉬운 번역을 내놓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서두루지 않으면 안될 상황, 곧 아직도 성경이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말은 곧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나 형태로 다양한 번역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예배용 성서, 선교용 성서, 교회 교육용 성서, 신학대학원용 성서, 대학용 성서, 중고등학교용 성서 등 그 상황과 필요에 따른 성서가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곧 청년이나 어린이 또는 다양한 교육과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 신학생, 목회자 등 특정한 여러 계층의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성서를 시장 논리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생소한 성서 속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는 내놓아야 한다. 주요 용어, 불분명한 관습, 사건이나 장소나 전쟁의 역사적, 지리적인 배경, 인물의 개인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담은 여러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주요 결정은 번역이나 자료개발의 기획 초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작업의 일차적인 스코프스, 곧 예상하고 있는 기능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누가 사용할 것인가(청소년, 여성, 어린이, 비그리스도인, 보통의 사람들 등)도 미리 결정해야 하고, 말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고 또 어떤 방언으로 해야 하며, 그 형태나 매체는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인쇄물, 비인쇄물, 오디오, 비디오, 이를 혼합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등)도 미리 결정해야 한다. 또한 그 제작물은 어떤 교단을 겨냥한 것이냐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초교단 용으로 내놓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특정한 성격을 지닌 소수 교단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기도 해야 한다. 번역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따라 대상을 결정하지 않고 번역 기획에

착수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쉽지 않다. 번역자들에게는 철저한 헌신과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 번역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일은 교회라는 선교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이다. 교회가 필요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번역자들의 짐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다.

번역: 이환진